

다른 길

자퇴와 검정고시, 그리고 직업계고

- ◆ 이 책은 **무료**입니다. 마음껏 나눠 주십시오.
- ◆ 공개된 요강·공시 자료만 정리했습니다. **예측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들어 있나

1부 · 학교 밖 자퇴와 검정고시 — 무엇이 닫히고 무엇이 열리나 · 6편

2부 · 직업계고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그리고 그 다음 · 6편

1 부

학교 밖

자퇴와 검정고시 — 무엇이 닫히고 무엇이 열리나

자퇴가 늘고 있습니다

자퇴하면 무엇이 닫히나

검정고시로 대학 가기

학적은 어떻게 되나

돌아올 수 있나

정하기 전에 확인할 것

2 부

직업계고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그리고 그 다음

특성화고·마이스터고·일반고

직업계고 입학 전형

졸업 뒤

일반전형이 왜 달히나

특별전형과 재직자전형

되돌릴 수 있나

64 · 차례**무엇이 어디에 있나**

1. **01** 자퇴가 늘고 있습니다 7
2. **02** 자퇴하면 무엇이 닫히나 12
3. **03** 검정고시로 대학 가기 17
4. **04** 학적은 어떻게 되나 22
5. **05** 돌아올 수 있나 27
6. **06** 정하기 전에 확인할 것 32
7. **07** 특성화고·마이스터고·일반고 37
8. **08** 직업계고 입학 전형 42
9. **09** 졸업 뒤 47
10. **10** 일반전형이 왜 닫히나 12
11. **11** 특별전형과 재직자전형 57
12. **12** 되돌릴 수 있나 62

CUBE

01 · 머리말

이 책을 왜 드리나

저희는 학원입니다. 그런데 이 책은 무료입니다.

까닭을 먼저 말씀드리는 편이 낫겠습니다. **저희에게 이득이 되기 때문입니다.**

입시 정보는 넘칩니다. 그런데 **믿을 만한 것과 파는 말이 섞여** 있어서, 학부모님이 그것을 가려내는 데 시간을 다 쓰십니다. 그 상태로 상담에 오시면 **첫 시간을 오해를 푸는 데** 씁니다.

이 책을 읽고 오시면 그 시간이 사라집니다. **「무엇을 물어야 하는지」를 아시는 분과의 상담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걸 나눠 드리는 것이 남는 장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손해가 되는 말도 그대로 적었습니다.

책 곳곳에 **「저희에게 손해가 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로 시작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학원을 늘리지 마시라는 말, 이건 상담 없이 집에서 하실 수 있다는 말, 그 강의는 안 들으셔도 된다는 말입니다.

다 진심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적은 자료라야 나머지 말도 믿으실 수 있습니다.

숫자에는 출처를 달았고, 없으면 안 썼습니다.

이 책의 숫자는 **공개된 모집요강·공시 자료·국가 통계**에서 왔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각 편 끝에 적어 두었습니다.

근거가 없는 자리는 **「저희 판단입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상담 경험에서 나온 것이라 다르게 보실 수 있고,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구분해 두는 것이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입시CUBE

2026년 8월

02 · 먼저 읽을 것

일반고 말고 다른 길

이 책은 「일반고에서 대학」이 아닌 길 둘을 다룹니다 — 학교 밖으로 나가는 길과 직업 교육의 길. 둘 다 이야기는 많이 도는데 확인된 것은 적은 자리입니다.

저희 태도를 먼저 밝혀 두겠습니다. 이 책은 권하지도 말리지도 않습니다. 가정이 정할 일이고, 저희가 아는 것은 제도가 어떻게 생겼는지뿐입니다.

그래서 이 책이 하는 일은 하나입니다 — 어느 문이 닫히고 어느 문이 열리는지를 숫자로 보여 드리는 것.

두 부의 차례

부	무엇을	확인한 것
1부	자퇴와 검정고시	수시 요강 989줄 가운데 제외 552줄
2부	특성화고 · 마이스터고	일반전형에서 대상으로 삼는 줄 0

둘 다 「닫혀 있다」로 읽히기 쉬운 숫자입니다. 그런데 양쪽 다 뒤에 열린 문이 있습니다 — 정시와 논술이 있고, 정원 외 특별전형이 있고, 3년 뒤에 열리는 재직자 전형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저희가 조심한 것

겁을 주지도 부추기지도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확인 못 한 것은 못 했다고 적었습니다. 기사에 도는 「고1 자퇴 1만 명」 같은 숫자는 교육부 공식 표와 맞지 않아 실지 않았고, 특성화고 전국 취업률·진학률도 공표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해 뺐습니다.

그리고 저희 요강 자료가 일반전형 중심이라 특별전형이 안 들어 있다는 것도 본문에 밝혀 두었습니다. 그걸 밝히지 않고 표만 내면 겁을 주는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 1부의 첫 편에서 말씀드리듯, 아이가 힘들어서 그만두려는 경우와 계산해서 그만두려는 경우는 완전히 다른 일입니다. 앞의 경우라면 이 책보다 상담이 먼저입니다.

03 · 먼저 사실부터

숫자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요즘 자퇴가 많다더라」는 말을 들으셨을 겁니다. 기사에 도는 숫자가 여럿이고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교육부가 발표한 원문 표에서 그대로 옮겨 왔습니다. 2024학년도 고등학교 학업중단율은 2.1%입니다.

학년도	고교 학생 수	학업중단자	중단율
2019	1,411,027	23,894	1.7%
2020	1,337,312	14,439	1.1%
2021	1,299,965	20,131	1.5%
2022	1,262,348	23,981	1.9%
2023	1,278,269	25,915	2%
2024	1,304,325	27,065	2.1%

학생 수는 줄고 있는데 중단자 수는 늘고 있다. 2020년 14,439명에서 2024년 27,065명으로 거의 두 배다. 중단율은 1.1%에서 2.1%가 됐다.

2020년이 낮은 것은 코로나로 학교가 제대로 안 돌아간 해이기 때문입니다. 그 뒤로 네 해 내리 올랐습니다.

출처: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25년 교육기본통계 조사 결과」 붙임 표 13 「초·중·고 학업중단율」(2025년 8월 발표, 2024학년도 기준). 기사에 도는 다른 숫자들은 이 표와 맞지 않아 실지 않았습니다.

04 · 낱말부터

「학업중단」은 자퇴만이 아닙니다

이 숫자를 읽을 때 가장 많이 어긋나는 자리가 여기입니다. 「학업중단」은 자퇴만 센 것이 아닙니다.

교육부가 표 아래에 단 주(註)를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 **고등학교의 학업중단 사유는 자퇴(질병·가사·부적응·해외출국·기타), 퇴학(품행), 유예, 면제, 제적이다. 사망자는 포함하지 않는다.**

사유	어떤 경우
자퇴	질병 · 가사 · 부적응 · 해외출국 · 기타
퇴학	품행
유예 · 면제	취학 의무를 미루거나 면제받은 경우
제적	학적에서 지워진 경우

그러니 「고등학생 27,065명이 자퇴했다」는 말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자퇴는 그중 일부이고, 얼마인지는 이 표로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퇴 안에도 결이 다릅니다

사유가 질병 · 가사 · 부적응 · 해외출국 · 기타로 나뉩니다. 해외로 나가는 것과 학교가 힘들어 그만두는 것이 같은 칸에 들어가 있습니다.

요즘 이야기되는 「정시에 걸려고 하는 자퇴」는 이 분류 어디에도 따로 없습니다. 「기타」에 들어가거나 다른 사유로 적힙니다.

그래서 「전략적 자퇴가 몇 명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공식 숫자는 없습니다. 그런 숫자를 제시하는 곳이 있다면 어떻게 했는지 물어보십시오.

출처: 위 표의 주(註) 2)~4). 「학업중단」은 자퇴만이 아니다. 퇴학·유예·면제·제적을 다 합친 수다. 자퇴만 따로 센 수를 이 표에서는 알 수 없다.

05 · 왜 늘어나나

단정할 수 없습니다

까닭을 하나로 말할 수 없습니다. 공식 통계는 사유를 다섯으로만 나누고, 그 안의 속사정은 안 셉니다.

다만 이야기되는 것은 대체로 넷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하나
정시 비중이 커졌다	수능으로 갈 길이 넓어지면 학교에 남을 이유가 준다는 셈입니다
내신에서 밀렸다	한 번 벌어진 내신은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학교가 힘들다	관계·건강·정서 — 입시와 무관한 자리입니다
다른 길을 찾았다	유학·직업·창작 등

이 넷은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통계에서는 한 줄로 합쳐집니다.

그래서 이 시리즈에서 저희가 가장 조심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이가 힘들어서 그만두려는 경우와 계산해서 그만두려는 경우는 완전히 다른 일입니다. 섞어서 이야기하면 둘 다 상합니다.

앞의 경우라면 이 자료보다 먼저 하실 일이 있습니다 — 학교 상담과 전문가 상담입니다. 입시 계산은 그다음입니다.

뒤의 경우라면 계산이 맞는지를 보셔야 하고, 그게 이 시리즈가 하는 일입니다.

이 면의 「이야기되는 것」 넷은 저희가 상담에서 듣는 것이며 통계로 확인된 사유 분포가 아닙니다.

06 · 그래서 무엇을

먼저 갈라 보십시오

차례	무엇을
1	어느 경우인지 먼저 가릅니다 — 힘든 것인가 계산인가
2	힘든 것이면 상담이 먼저입니다
3	계산이면 무엇이 달히는지 봅니다 (다음 편)
4	되돌아올 수 있는지도 함께 봅니다 (N5)

1번이 이 편의 결론입니다. 둘을 가르지 않으면 어느 쪽에도 맞지 않는 결정이 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확인하실 여덟 가지

- ☐ 「학업중단」이 자퇴만이 아니라 는 것을 아는가
- ☐ 공식 통계에 「전략적 자퇴」 항목이 없다 는 것을 아는가
- ☐ 우리 아이가 어느 경우 인지 갈랐는가
- ☐ 힘든 것이라면 상담을 받아 보았는가
- ☐ 아이 본인의 말을 끝까지 들었는가
- ☐ 결정을 급하게 하고 있지 않은가
- ☐ 무엇이 달히는지 알아보았는가
- ☐ 되돌아오는 길 을 알아보았는가

여섯째를 특히 부탁드립니다. 학적은 한 번 바꾸면 되돌리는 데 시간과 절차가 듭니다. 한 달을 더 생각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입시CUBE가 드리는 말씀

이 시리즈는 자퇴를 권하지도 말리지도 않습니다. 그건 가정이 정할 일이고, 저희가 아는 것은 제도가 어떻게 생겼는지뿐입니다. 다만 모르고 정하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결정에 대해 도는 이야기 가운데 확인된 것이 많지 않습니다. 확인된 것만 다음 편들에 담았습니다.

07 · 자주 묻는 것

자퇴 이야기에 대해 자주 하시는 질문

Q. 요즘 자퇴가 유행이라던데 정말인가요?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고등학교 학업중단율이 2020년 1.1%에서 2024년 2.1%가 됐습니다.

다만 「유행」이라는 말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2.1%는 백 명 중 두 명입니다. 아흔여덟 명은 학교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숫자에는 퇴학·유예·면제·제적이 다 들어 있습니다. 「계산해서 자퇴한 학생」만 센 숫자는 공표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다들 한다」로 읽지는 마십시오. 늘어나는 흐름은 분명하지만, 여전히 드문 선택입니다.

Q. 아이가 자퇴하고 싶다고 합니다.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먼저 까닭을 끝까지 들어 보십시오. 그것이 이 시리즈 여섯 편보다 먼저입니다.

같은 「자퇴하고 싶다」가 완전히 다른 뜻일 수 있습니다. 「수능에 집중하고 싶다」일 수도 있고, 「학교에 가는 것이 너무 힘들다」일 수도 있습니다.

뒤쪽이라면 학교 상담 선생님, 지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전문 기관을 먼저 찾으십시오. 입시 계산으로 답할 문제가 아닙니다.

앞쪽이라면 다음 편부터 보시면 됩니다 — 수사에서 무엇이 닫히는지, 검정고시로 가면 어떤 구조가 되는지, 되돌아올 수 있는지.

그리고 결정을 서두르지 마십시오. 학기 중에 정할 일이 아니고, 대개는 한 학기를 더 두고 봐도 됩니다.

한 줄로 남기면

고교 학업중단율은 **1.1%에서 2.1%**가 됐습니다. 다만 「**학업중단**」은 자퇴만이 아니고, 힘들어서와 계산해서는 완전히 다른 일입니다.

이 자료는 2026년 8월 기준 교육부 「2025년 교육기본통계」를 정리한 것입니다. 「**학업중단**」은 자퇴만이 아니다. 퇴학·유예·면제·제적을 다 합친 수다. 자퇴만 따로 센 수를 이 표에서는 알 수 없다.

08 · 먼저 사실부터

요강을 세어 보았습니다

「자퇴해도 정시로 가면 된다」는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정시는 열려 있고, 수시가 상당 부분 닫힙니다. 저희가 2027 수시 요강 6,482줄의 지원 자격 문장을 세어 보았습니다.

무엇을 썼나	줄	대학
수시 요강 전체	6,482	41
검정고시를 언급한 자격 문장	989	13
그중 제외로 읽히는 줄	552	6
지원 가능으로 읽히는 줄	325	7
언급이 아예 없는 줄	5,493	28

맨 아랫줄을 먼저 짚어 두겠습니다. 5,493줄에는 검정고시 이야기가 아예 없습니다. 없다고 되는 것도,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집계로는 알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 표는 「수시가 몇 % 닫힌다」는 표가 아닙니다. 「명시적으로 막아 둔 자리가 이만큼 있다」는 표입니다.

출처: 2027학년도 수시 모집요강 6,482줄 / 41개 대학의 지원자격 문장을 저희가 직접 센 것(2026년 8월 기준). **날말로 센 것이다. 표현이 다른** 요강은 빠졌을 수 있고, 언급이 없는 28개 대학 5,493줄은 되는지 안 되는지 이 집계로는 알 수 없다. 지원 전에 반드시 그 대학 요강 원문을 읽어야 한다.

09 · 어느 문이 인색한가

학종이 가장 막혀 있습니다

제외로 읽히는 552줄을 전형별로 갈라 보았습니다.

전형	제외 줄	가능 줄	전체 줄
학종	286	195	2,851
교과	218	57	2,584
논술	37	60	1,033

제외로 읽히는 552줄 가운데 학종이 286줄로 가장 많습니다. 학종이 검정고시에 가장 인색한 문입니다.

- 구조를 보면 그럴 만합니다
- 학종은 학생부를 읽는 전형입니다. 검정고시 합격자에게는 읽을 학생부가 없습니다. 세특도, 창체도, 행동특성도 없습니다.
- 교과는 내신 등급을 셈하는 전형입니다. 검정고시 성적을 등급으로 바꾸는 규칙이 따로 있어야 합니다. 그 규칙을 두지 않은 대학은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 논술은 상대적으로 열려 있습니다. 시험을 쳐서 뽑는 전형이라 학생부가 없어도 셈이 됩니다. 실제로 논술은 **가능 60줄이** 제외 37줄보다 많습니다.
- 이건 대학이 인색해서가 아니라 전형의 생김새입니다. 학생부를 읽는 문일수록 닫히고, 시험으로 뽑는 문일수록 열립니다.

출처: 위와 같음. 전형 분류는 전형명에서 같랐고, 이름이 다른 전형은 「기타」로 썼습니다.

10 · 무엇이 없어지나

자격 말고도 있습니다

자격 조항만이 아닙니다. 따라서 없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없어지는 것	왜
학생부	그 뒤로는 쌓이지 않습니다 — 세특·창체·행특
학교장 추천	추천할 학교가 없습니다
지역인재전형	대개 해당 지역 고교 이수를 요구합니다
내신 등급	남은 학기가 없으면 더 못 올립니다
교내 활동	동아리·학교 계획 봉사

셋째 줄을 특히 보십시오. 지역인재는 검정고시 합격자가 쓰기 어려운 자리입니다. 지방 의약학을 보고 계셨다면 이게 가장 크게 닫히는 문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안 없어지는 것

그대로입니다	무엇
정시	수능으로 겨룹니다 — 학생부가 필요 없습니다
논술	상대적으로 열려 있습니다
수능 응시 자격	검정고시 합격자도 그대로 응시합니다

그래서 「정시로 간다」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구조상 그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출처: 2027학년도 수시 모집요강 지원자격 문장 및 각 전형 안내. 지역인재 요건은 대학마다 다르니 반드시 요강을 확인하십시오.

11 · 그래서 무엇을

요강을 직접 보는 법

저희 집계로는 안 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가고 싶은 그 대학이 되는가」입니다.

언급이 없는 5,493줄이 있고, 표현도 대학마다 다릅니다. 그건 요강을 직접 보셔야 합니다.

차례	무엇을
1	가려는 대학의 수시 모집요강을 엽니다
2	「지원 자격」 항목을 찾습니다
3	「검정고시」「국내 고등학교」「졸업(예정)자」를 찾아봅니다
4	애매하면 입학처에 전화합니다

3번에서 찾으실 낱말이 셋입니다. 「검정고시 지원 불가」처럼 대놓고 적힌 곳도 있지만, 「국내 고등학교에서 3학기 이상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처럼 돌려서 막아 둔 곳도 있습니다 — 뒤쪽이 더 많고, 놓치기 쉽습니다.

확인하실 여덟 가지

- ☐ 가려는 대학의 **요강을 직접** 봤는가
- ☐ 「**검정고시**」라는 낱말을 찾아봤는가
- ☐ 「**국내 고등학교 이수**」조건이 있는지 봤는가
- ☐ **학교장 추천**이 필요한 전형인지 봤는가
- ☐ **지역인재**를 쓸 계획이었는가
- ☐ **내신 산출 방법**이 적혀 있는가
- ☐ 애매한 곳은 **입학처에 물어봤**는가
- ☐ 지금 요강이 **올해 것**인가 (해마다 바뀝니다)

여덟째를 조심하십시오. 지금 보시는 요강은 지금 고3의 것입니다. 몇 해 뒤에 원서를 낸다면 그때 요강은 다릅니다.

입시CUBE가 드리는 말씀

이 편에서 가장 걱정되는 것은 「정시로 가면 된다」는 한 줄만 듣고 정하는 일입니다. 정시가 열려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수시 여섯 장이 세 장으로 줄어드는 셈이고, 그 셋도 군이 갈려 실제로는 더 좁습니다. 기회의 수가 절반 이하가 된다는 것을 알고 정하시는 것과 모르고 정하시는 것은 다릅니다.

12 · 자주 묻는 것

자격에 대해 자주 하시는 질문

Q. 검정고시 출신도 학종을 쓸 수 있나요?

대학에 따라 다릅니다. 다만 가장 인색한 문인 것은 맞습니다.

저희가 센 바로는 학종에서 제외로 읽히는 줄이 286줄, 가능으로 읽히는 줄이 195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원할 수 있어도 불리할 수 있습니다. 학종은 학생부를 읽는 전형인데 검정고시 합격자에게는 읽을 학생부가 없습니다.

일부 대학은 검정고시 합격자용 서류나 평가 방법을 따로 두기도 합니다. 그건 요강에 적혀 있으니 확인하십시오.

「쓸 수 있다」와 「경쟁이 된다」는 다릅니다. 둘을 갈라서 보셔야 합니다.

Q. 3학년 1학기까지 다니고 자퇴하면 낫지 않나요?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는 맞고 일부는 아닙니다.

맞는 부분 — 학생부와 내신이 그 시점까지는 남습니다. 요강에 「국내 고등학교에서 3학기 이상 이수」 같은 조건이 있는 곳은 그 조건을 채울 수도 있습니다.

아닌 부분 — 자퇴하면 학적이 「졸업」이 아닙니다.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를 요구하는 자리는 그대로 막힙니다. 그리고 검정고시로 학력을 갖추면 「검정고시 합격자」가 됩니다.

그러니 「이수 학기」와 「졸업 여부」는 다른 조건입니다. 요강이 둘 중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이건 대학마다 다르고, 한 줄로 답할 수 없습니다. 가려는 곳의 요강을 직접 읽으십시오.

한 줄로 남기면

요강 6,482줄에서 **검정고시를 막아 둔 줄이 552이고, 학종이 가장 막혀 있습니다. 정시와 논술은 상대적으로 열려 있습니다.**

이 자료는 2026년 8월 기준 2027학년도 수시 모집요강을 저희가 썬 것입니다. **날말로 썬 것이다. 표현이 다른 요강은 빠졌을 수 있고, 언급이 없는 28개 대학 5,493줄은 되는지 안 되는지 이 집계로는 알 수 없다.** 지원 전에 반드시 그 대학 요강 원문을 읽어야 한다.

13 · 먼저 사실부터**문이 정시 쪽으로 좁아집니다**

검정고시 합격은 고등학교 졸업과 같은 학력입니다. 대학에 지원할 자격이 생깁니다. 그런데 「**자격이 있다**」와 「**모든 문이 열린다**」는 다릅니다. 앞 편에서 본 대로 수시가 좁아지고, 남는 무게가 정시로 쏠립니다.

문	어떻게 되나
정시	그대로 열려 있습니다 — 수능으로 겨룹니다
논술	상대적으로 열려 있습니다 — 가능 60줄 · 제외 37줄
교과	내신 산출 방법이 있어야 합니다 — 제외 218줄
학종	가장 좁습니다 — 제외 286줄

수능 응시 자격은 그대로입니다. 검정고시 합격자도 **재학생과 같은 시험을 같은 날 봅니다.**

그러니 「**정시로 간다**」는 계산 자체는 성립합니다. 다만 그 계산이 무엇을 포기하는 것인지를 이 편에서 보시겠습니다.

먼저 갈라 두실 것

「**검정고시로 대학을 갈 수 있는가**」와 「**검정고시로 가는 것이 유리한가**」는 다른 물음입니다.

앞의 물음에는 「**갈 수 있습니다**」가 답입니다. 뒤의 물음에는 「**경우에 따라 다르고, 대체로 문이 좁아집니다**」가 답이고, 이 편은 뒤의 물음을 다룹니다.

출처: 2027학년도 수시 모집요강 6,482줄의 지원자격 문장 집계 및 수능 응시 자격 안내(2026년 8월 기준). **날말로 센 것이다. 표현이 다른 요강은 빠졌을 수 있고, 언급이 없는 28개 대학 5,493줄은 되는지 안 되는지 이 집계로는 알 수 없다.** 지원 전에 반드시 그 대학 요강 원문을 읽어야 한다.

14 · 숫자로 보면

기회의 수가 줄어듭니다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것은 원서 장수입니다.

	재학생	검정고시 합격자
수시	여섯 장	쓸 수 있는 자리가 줄어듭니다
정시	세 장	세 장
합계	아홉 장	실질적으로 더 적습니다

여섯 장이 0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논술과 일부 교과·학종은 열려 있습니다. 다만 고를 수 있는 자리가 좁아지니 여섯 장을 채우기가 어려워집니다.

정시 쪽 숫자도 함께 보십시오

정시는 세 군에 한 장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2026학년도 정시 입결 5,261줄을 센 바로는 **충원을 중앙값이 42%이고 충원이 한 명도 없는 자리가 33%**입니다.

정시는 예비번호가 도는 편이지만 세 장뿐이라 한 장의 무게가 수시보다 큼니다.

그러니 「정시에 올인」은 기회를 좁히면서 한 장의 무게를 키우는 선택입니다. 수능을 아주 잘 볼 자신이 있을 때 맞는 계산이고, 그 자신이 어디서 오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출처: 2026학년도 정시 전형결과 5,261줄/40개 대학 집계. **충원 0명인 줄을 빼면 중앙값이 42%→69%로 부풀다. 0은 falsy라 실수하기 쉽다.**

15 · 내신은 어떻게 되나

대학마다 다릅니다

가장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검정고시 성적이 내신 등급으로 바뀌는가.

대학마다 다르고, 규칙을 두지 않은 대학이 많습니다. 저희가 요강을 켜 바로는 검정고시 성적의 산출 방법을 자격 문장에 적어 둔 줄은 찾지 못했습니다. 따로 안내하거나 아예 안 받는다는 뜻입니다.

대학이 하는 방식	어떻게
안 받습니다	자격에서 제외 — 가장 흔합니다
따로 셈합니다	검정고시 성적을 대학이 정한 방법으로 환산
서류로 봅니다	학생부 대신 다른 서류를 요구

둘째·셋째 줄에 해당하는 대학이 있다면 그건 요강에 적혀 있습니다. 없는데 짐작으로 지원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확인하실 것

방법은 하나입니다. 가려는 대학 요강에서 「검정고시」를 찾아보시고, 나오지 않으면 입학처에 직접 물어보십시오. 물어보실 것은 셋입니다 — 「지원할 수 있습니까」, 「성적은 어떻게 셈합니까」, 「서류는 무엇을 냅니까」.

전화 한 통이면 되는 일이고, 이걸 안 하고 정하는 것이 이 결정에서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물어보실 때의 요령

「검정고시 출신인데 지원할 수 있나요」보다 「○○전형에 검정고시 합격자가 지원할 수 있는지, 성적은 어떻게 산출하는지 알고 싶습니다」가 낫습니다.

전형을 짚어서 물으셔야 합니다. 같은 대학 안에서도 전형마다 자격이 다릅니다.

그리고 답을 들으신 날짜와 내용을 적어 두십시오. 요강은 해마다 바뀌고, 지금 들은 답이 원서 낼 때도 같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출처: 2027학년도 수시 모집요강 지원자격 문장 집계. 검정고시 성적 산출 방식은 대학이 따로 안내합니다 — 입학처에 확인하십시오.

16 · 그래서 무엇을

계산을 세워 보는 법

「정시로 간다」는 계산을 세워 보시겠습니다. 세 가지를 건주는 일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재나
1	지금 내신으로 갈 수 있는 곳	남아 있는 수시 자리
2	수능으로 갈 수 있는 곳	모의고사 성적으로 짐작
3	학교에 남아 둘 다 하는 것	수시 여섯 + 정시 세 장

3번을 빼놓고 1과 2만 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남아도 정시는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자퇴가 정시를 여는 것이 아닙니다.

자퇴로 얻는 것은 「시간」이고, 잃는 것은 「수시 자리」입니다. 그 시간이 수시 자리보다 값이 큰가 — 계산은 그 한 줄입니다.

계산 전에 확인하실 여덟 가지

- ☐ 가려는 대학이 **검정고시를 받는지** 확인했는가
- ☐ 받는다면 **성적을 어떻게 셈하는지** 확인했는가
- ☐ **지역인재** 를 쓸 계획이었는가 (대개 막힙니다)
- ☐ 지금 **모의고사 성적** 이 목표와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 ☐ 학교에 남아도 **정시는 볼 수 있다** 는 것을 아는가
- ☐ 자퇴로 **실제로 늘어나는 시간** 이 얼마인지 세어 봤는가
- ☐ 혼자 **하루를 짤 수** 있는 아이인가
- ☐ **안 되면 돌아올 길** 을 알아봤는가 (N5)

일곱째가 실제로 가장 크게 걸립니다. 학교가 짜 주던 하루를 스스로 짜야 합니다. 그게 되는 아이와 안 되는 아이의 결과가 아주 다릅니다.

입시CUBE가 드리는 말씀

저희가 상담에서 본 바로는 이 선택이 잘 된 경우와 안 된 경우를 가른 것은 대개 「수능 실력」이 아니라 「혼자 하루를 짊어질 수 있는가」였습니다. 실력은 비슷해도 결과가 달랐습니다. 이건 성적표로 알 수 없는 것이고, 부모님이 가장 잘 아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17 · 자주 묻는 것**검정고시와 대입에 대해 자주 하시는 질문****Q. 검정고시 성적이 좋으면 대입에 도움이 되나요?**

대체로 아닙니다. 검정고시는 학력을 인정받는 시험이지 등수를 매기는 시험이 아닙니다.

합격하면 고졸 학력이 생기고, 그것으로 대학에 지원할 자격이 됩니다. 점수가 높다고 지원 자격이 더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검정고시 성적을 내신처럼 환산해서 쓰는 대학이 있기는 합니다. 그 경우에는 점수가 쓰입니다. 다만 그건 대학이 요강에 적어둔 경우이고, 안 적혀 있으면 안 쓰입니다.

그러니 「검정고시를 잘 봐서 유리해지자」는 계산은 대개 성립하지 않습니다. 합격이 목표이고, 승부는 수능입니다.

Q. 재수생과 검정고시 출신은 대입에서 다르게 취급되나요?

정시에서는 사실상 같습니다. 둘 다 수능 점수로 겨루고, 학생부가 쓰이지 않는 전형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수시에서는 다릅니다. 재수생은 고등학교 졸업자라 「졸업(예정)자」 조건을 채웁니다. 검정고시 합격자는 그 조건에 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수생에게는 3년치 학생부가 있습니다. 학종을 쓸 수 있는 자리가 검정고시 출신보다 넓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재수할 거면 자퇴가 낫다」는 계산은 위험합니다. 졸업하고 재수하는 쪽이 문이 더 넓습니다.

남은 학기가 얼마인지를 보십시오. 한두 학기 남았다면 마치는 쪽이 대개 낫습니다.

한 줄로 남기면

검정고시는 **지원 자격을 주지만 수시 자리를 좁힙니다. 자퇴로 얻는 것은 시간이고 잃는 것은 수시 자리**입니다.

이 자료는 2026년 8월 기준 요강 집계와 공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대학별 취급은 요강에 따르며 해마다 바뀝니다.** 상담 경험에서 온 부분은 그렇게 밝혔습니다.

18 · 먼저 사실부터

자퇴 말고도 길이 있습니다

「학교를 그만둔다」는 말 안에 사실 여러 갈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이 모르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 **고등학교에는 휴학이 있습니다. 그만두지 않고 잠시 멈추는 길이 제도 안에 있습니다.**

용어	규정이 정한 뜻
휴학	질병 등의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 하에 일정기간 동안 교육과정 이수를 중단함 .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는 불가 — 고등학교는 된다
자퇴	고등학교에서 개인 또는 가정사정으로 인해 학생의 바람으로 재학생의 신분을 포기함
퇴학	고등학교에서 징계 등 학칙에 따라 재학생의 신분을 박탈함
제적	고등학교에서 사망 등 학칙에 따라 재학생 자격이 소멸 되어 학적에서 제외됨
유급	해당 학년 교육과정 미수료에 따라 상급 학년으로 진급하지 못함 .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하지 못한 경우

고등학교에 「**휴학**」이 있다는 것을 모르시는 분이 많다. 자퇴 말고 잠시 멈추는 길이 제도 안에 있다.

출처: 17개 시도교육청 「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등학교) [별표 7] 학적처리에 사용하는 용어. 휴학 허가와 사유 인정 범위는 학교장과 학칙에 따른다. 학교에 직접 확인해야 한다.

19 · 휴학

먼저 알아보실 자리

규정의 문장을 다시 보십시오. 「질병 등의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 하에 일정기간 동안 교육과정 이수를 중단함.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는 불가 — 고등학교는 된다」

	휴학	자퇴
학적	남습니다	없어집니다
돌아올 때	복학하면 됩니다	재입학 절차를 밟습니다
누가 정하나	학교장 허가	본인의 뜻
사유	질병 등	개인·가정 사정

첫째 줄이 큰 차이입니다. 휴학은 학적이 남습니다. 돌아올 때 재입학이 아니라 복학입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질병 등의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 하에」입니다. 아무 때나 되는 것이 아니고, 사유와 허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휴학 허가와 사유 인정 범위는 학교장과 학칙에 따른다. 학교에 직접 확인해야 한다. 학교마다 다를 수 있으니 먼저 물어보셔야 합니다.

그래도 물어볼 값은 충분히 있습니다. 자퇴를 생각하고 계시다면 「휴학이 되는지」를 먼저 여쭙보십시오. 안 된다는 답을 듣고 자퇴를 정하는 것과 묻지도 않고 자퇴하는 것은 다릅니다.

출처: 위와 같음. 휴학 허가 요건과 기간은 학칙에 따릅니다 — 학교에 확인하십시오.

20 · 유급

뜻밖에 걸리는 자리

그만두려던 것이 아닌데 학적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학년 교육과정 미수료에 따라 상급 학년으로 진급하지 못함.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하지 못한 경우

구체적으로는 수업일수 191일이면 128일 이상 출석하지 못한 경우 학년말에 유급 대상이 된다(3분의 2 올림)입니다.

수업일수	3분의 2	이만큼 못 나오면
191일인 경우	128일	유급 대상

결석이 쌓이면 그만둘 생각이 없어도 학년을 다시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학적이 흔들리면 자퇴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 순서가 이렇습니다

차례	무엇을
1	결석이 쌓이고 있는지 봅니다
2	사유가 있으면 증빙을 냅니다
3	길어질 것 같으면 휴학을 여쭙습니다
4	그다음에 자퇴를 생각합니다

4번이 마지막입니다. 1·2·3을 건너뛰고 4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 셋에 답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출처: 17개 시도교육청 2026학년도 기재요령(고등학교) 별표 7·별표 8. 출결 인정과 휴학 요건은 학교와 시도교육청 지침에 따릅니다.

21 · 그만둔 뒤

학교 밖에도 제도가 있습니다

학교를 그만두면 아무 데도 속하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제도가 따로 있습니다.

무엇	어떤 도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학업 복귀 · 검정고시 준비 · 진로 · 상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정서·심리 상담
학업중단 숙려제	그만두기 전에 생각할 시간을 갖는 제도

셋째 줄을 특히 보십시오. 학업중단 숙려제는 그만두겠다고 한 학생에게 바로 처리하지 않고 숙려 기간을 두는 제도입니다.

충동적인 결정을 막으려고 만든 것이고, 학교가 안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학교에 말씀하시면 바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이 절차가 먼저 옵니다. 그 시간을 쓰십시오.

학적을 정하기 전 확인하실 여덟 가지

- ☐ 휴학이라는 길이 있다는 것을 아는가
- ☐ 학교에 휴학이 되는지 물어봤는가
- ☐ 휴학과 자퇴의 차이 를 아는가 (학적이 남는가)
- ☐ 결석이 쌓이고 있지 않은가
- ☐ 증빙을 제때 내고 있는가
- ☐ 학업중단 숙려제 를 안내받았는가
- ☐ 꿈드림 같은 기관을 알아봤는가
- ☐ 결정을 한 학기 뒤로 미룰 수 있는가

여덟째를 권해 드립니다. 급하게 정해서 좋았다는 이야기를 저희는 거의 못 들었습니다.

입시CUBE가 드리는 말씀

이 편에서 가장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퇴와 계속 다니기」 둘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휴학이 있고, 숙려제가 있고, 학교 밖 지원 기관이 있습니다. 둘 중 하나로만 보시면 급한 결정이 됩니다. 가운데 있는 것들을 먼저 알아보십시오.

22 · 자주 묻는 것

학적에 대해 자주 하시는 질문

Q. 휴학은 얼마나 할 수 있나요?

학교마다 다릅니다. 규정은 「일정기간」이라고만 하고 있고, 구체적인 기간은 학칙에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장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신청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허가받아야 합니다.

사유도 「질병 등」이라고 되어 있어 무엇까지 인정되는지는 학교가 판단합니다.

그러니 이걸 여기서 답을 드릴 수 없고, 학교에 여쭙보셔야 합니다. 묻는 것은 「휴학이 가능한지, 사유는 무엇이 인정되는지, 기간은 얼마인지, 복학은 언제 하는지」 넷입니다.

담임 선생님이나 교무실에 여쭙보시면 됩니다.

Q. 자퇴하면 검정고시를 바로 볼 수 있나요?

바로는 아닙니다. 검정고시 응시 자격에 기간 조건이 있습니다.

제적·퇴학된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야 응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기간과 기준일은 시·도 교육청이 해마다 내는 공고에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은 한 해에 몇 차례뿐입니다. 언제 그만두느냐에 따라 다음 시험까지 몇 달이 비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니 「그만두고 바로 준비하면 된다」는 계산은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만두기 전에 시·도 교육청 검정고시 공고를 찾아 응시 자격과 일정을 확인하십시오.

이게 순서를 크게 바꿀 수 있는 확인입니다.

한 줄로 남기면
휴학·숙려제·학교 밖 지원이 자퇴와 계속 다니기 사이에 있습니다. 가운데 있는 것부터 알아보십시오.

이 자료는 2026년 8월 기준 교육부 기재요령의 학적 용어 정의를 정리한 것입니다. 휴학 요건·검정고시 응시 자격과 일정은 학교와 시·도 교육청 공고에 따릅니다 — 반드시 해당 기관에 확인하십시오.

23 · 먼저 사실부터

길은 있습니다

「한번 그만두면 끝인가요」가 이 결정에서 가장 무거운 물음입니다. 제도에는 돌아오는 길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시점이 정해져 있고, 그 시점을 놓치면 한 해가 지나갑니다.

길	뜻
복학	휴학기간 만료에 따라 다시 학교에 들어옴 — 휴학했던 경우
재입학	고등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한 자가 중단 이전의 학교에 재학 당시 학년 또는 그 아래의 학년으로 다시 입학함
편입학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자가 학업 중단 이전의 학교에 재학 당시 학년의 차상급 학년으로 다시 입학하거나, 다른 학교로 다시 입학함

셋의 차이가 큼니다. 복학은 학적이 남아 있던 경우이고, 재입학은 원래 학교로 같은 학년이나 아래 학년, 편입학은 위 학년이나 다른 학교입니다.

그러니 앞 편에서 말씀드린 「휴학」이 여기서 값을 합니다. 휴학이었으면 복학이고, 입니다.자퇴였으면 재입학이나 편입학

출처: 17개 시도교육청 「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등학교) [별표 7] 학적처리에 사용하는 용어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실제 허가와 절차는 학교와 시도교육청에 따른다. 학교에 직접 확인해야 한다.

24 · 가장 중요한 것

시점이 정해져 있습니다

입학·편입학은 당해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 남은 시점까지 수시로 입급할 수 있다(시행령 제50조·제89조)

이 한 줄이 이 편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돌아오려면 그 학년의 수업일수가 3분의 2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언제 돌아오나	어떻게 되나
학년 초·중반	그 학년을 수료할 수 있습니다
3분의 2가 지난 뒤	원칙적으로 그 학년도에는 안 됩니다

왜 그런가 — 규정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출석일수가 당해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 미만이 되면 수료 또는 졸업 인정이 되지 않아 원칙적으로 그 학년도 입학·편입학이 불가능하다. 다만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면 학교장이 학습권 보호 차원에서 허가할 수 있고, 이때 그 학년도에는 수료·졸업이 안 된다는 것을 미리 알려 주게 되어 있다

그러니 「언제든 돌아가면 된다」가 아닙니다. 돌아갈 마음이 생겼을 때가 학년 후반이면 그 해는 지나갑니다.

여기서 따라 나오는 것

자퇴를 정하실 때 「돌아올 시점」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해 보고 아니면 돌아가자」는 계획은 돌아갈 시점을 정해 두지 않으면 실제로는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몇 월까지 해 보고, 아니면 몇 월에 돌아간다」를 미리 적어 두시라는 뜻입니다.

출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제89조 및 기재요령 편입학 항목. 학교마다 운영이 다를 수 있으니 학교에 확인하십시오.

25 · 어느 학년으로

같은 학년인가 위 학년인가

	어디로	어느 학년으로
재입학	중단 이전의 학교	재학 당시 학년 또는 그 아래
편입학	이전 학교 또는 다른 학교	재학 당시 학년의 차상급 학년

편입학의 자격 조건이 이렇습니다 — 편입학하는 학년의 이전 학년까지의 과정을 수료한 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4조)

그러니 2학년에서 그만두었다면 2학년 과정을 수료했어야 3학년으로 편입학할 수 있습니다. 학기 중에 그만두어 수료가 안 됐다면 그 학년을 다시 해야 합니다.

학년을 따로 정할 수 있는 길도 있습니다

학교 외 학습경험에 관한 심의와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해 편입학하게 할 수 있다 (시행령 제98조의4)

학교 밖에서 공부한 것을 평가받아 학년을 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학교가 위원회를 열어야 하는 일이라 모든 학교에서 흔히 하는 일은 아닙니다.

가능한지부터 학교에 물어보셔야 합니다.

출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4조·제98조의4 및 기재요령 편입학 항목. 이수인정평가 운영은 학교와 시도교육청에 따릅니다.

26 · 그래서 무엇을

돌아올 계획을 미리 세우는 법

돌아오는 길은 나가기 전에 정해 두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자퇴를 정하시기 전에 이 넷을 적어 두십시오.

	무엇을	왜
1	언제까지 해 볼 것인가	기한이 없으면 계획이 아닙니다
2	무엇이 안 되면 돌아올 것인가	기준을 미리 정합니다
3	어느 학교로 돌아올 것인가	재입학인지 편입학인지 갑니다
4	몇 월에 신청해야 하는가	수업일수 3분의 2 안입니다

4번을 학교에 미리 물어보십시오. 「돌아오려면 언제까지 말해야 합니까」 한 마디면 됩니다.

그만두는 날에 물어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때는 학교와 이야기가 되는 상태이고, 한참 지난 뒤에 연락하기는 서로 어색해집니다.

돌아오는 길에 대해 확인하실 여덟 가지

- ☐ 복학·재입학·편입학 의 차이를 아는가
- ☐ 휴학이면 복학 이라는 것을 아는가
- ☐ 수업일수 3분의 2 제한을 아는가
- ☐ 돌아올 기한 을 정해 두었는가
- ☐ 돌아올 기준 을 정해 두었는가
- ☐ 학교에 절차를 물어봤는가
- ☐ 그 학년을 수료했는지 아는가
- ☐ 이수인정평가 가 가능한 학교인지 물어봤는가

여섯째를 그만두시는 날에 하십시오. 「나중에 돌아올 수도 있는데 그때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 이 한 마디가 나중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입시CUBE가 드리는 말씀

돌아올 길은 있다. 다만 시점이 정해져 있다.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가 남아 있어야 하니, 돌아오려면 학년 초·중반에 정해야 한다.

저희가 상담에서 본 어려운 경우는 돌아가고 싶는데 시점을 놓친 경우였습니다. 제도가 막은 것이 아니라 몰라서 놓친 것이었습니다. 나가실 때 돌아올 문의 위치를 확인해 두십시오.

27 · 자주 묻는 것

돌아오는 것에 대해 자주 하시는 질문

Q. 자퇴했다가 돌아오면 학생부에 남나요?

학적 변동은 학적사항에 남습니다. 규정상 학적변동이 발생한 일자, 학교와 학년, 학적변동 내용을 학적사항에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건 사실대로 말씀드려야 합니다.

다만 그것이 어떻게 읽히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대학이 학적 변동만으로 판단한다는 근거는 저희에게 없습니다. 있다고 말하는 곳이 있으면 근거를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중단한 기간의 학생부는 비어 있게 됩니다. 남는 문제는 「기록이 있다」 보다 「기록이 없다」 쪽입니다.

학종을 쓸 계획이라면 이게 실질적인 부담입니다.

Q. 검정고시를 봤는데 다시 학교로 갈 수 있나요?

제도상으로는 편입학이 가능합니다. 편입학하는 학년의 이전 학년까지의 과정을 수료한 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4조)가 편입학할 수 있으니, 검정고시 합격으로 학력이 인정되면 그 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학교와 시도교육청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정원, 시점, 학년 배정이 다 걸립니다.

그리고 시점 제한이 여기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 당해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묻는 곳은 가려는 학교의 교무실이고, 학교에서 어려우면 지역 교육지원청에 물어보시면 됩니다.

「검정고시를 봤으니 이제 못 돌아간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다만 절차가 있고 시점이 있습니다.

한 줄로 남기면
돌아오는 길은 **복학·재입학·편입학** 셋이고, **당해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 남은 시점까지**여야 합니다.

이 자료는 2026년 8월 기준 교육부 기재요령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정리한 것입니다. 실제 허가와 절차는 학교와 시도교육청에 따른다. 학교에 직접 확인해야 한다.

28 · 한 눈에

앞의 다섯 편을 순서로

이 시리즈는 자퇴를 권하지도 말리지도 않습니다. 가정이 정할 일이고, 저희가 아는 것은 제도가 어떻게 생겼는지뿐입니다. 이 편은 앞의 다섯 편을 「정하는 순서」로 다시 세운 것입니다.

	먼저 물으실 것	어디에 있나
1	힘든 것인가 계산인가	N1 — 여기서 갈립니다
2	휴학은 안 되는가	N4 — 가운데 길이 있습니다
3	무엇이 달하는가	N2 — 요강 552줄
4	정시 계산이 맞는가	N3
5	돌아올 시점은 언제인가	N5

1번에서 갈리지 않으면 나머지가 다 헛계산입니다. 아이가 힘들어서 그만두려는 것이면 입시 계산이 답이 아닙니다.
2번을 건너뛰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자퇴냐 계속 다니냐」 둘로만 보시면 가운데가 안 보입니다.

출처: 앞의 다섯 편과 같습니다 — 교육부 교육기본통계·기재요령·시행령, 2027학년도 수시 모집요강 집계(2026년 8월 기준).

29 · 숫자만 모르면

이 결정에 걸린 사실들

무엇	숫자	어디서
고교 학업중단율 (2024학년도)	2.1%	교육부 교육기본통계
2020학년도	1.1%	// — 네 해 만에
수시 요강에서 검정고시를 막아 둔 줄	552	2027 요강 집계
그중 학종	286	// — 가장 좁습니다
정시 원서	세 장	가·나·다군
돌아올 수 있는 시점	3분의 2	당해 학년 수업일수 기준

이 여섯 줄이 이 시리즈에서 확인된 사실의 전부입니다. 나머지는 가정마다 다릅니다.

확인되지 않은 것들

이런 이야기	사실은
「고1 자퇴가 1만 명이다」	공식 표에 그런 숫자는 없습니다
「전략적 자퇴가 늘고 있다」	통계에 그런 항목이 없습니다
「자퇴생이 대학을 더 잘 간다」	근거를 못 찾았습니다
「대학이 자퇴를 불리하게 본다」	이것도 근거를 못 찾았습니다

마지막 두 줄을 함께 보십시오. 유리하다는 근거도, 불리하다는 근거도 저희는 못 찾았습니다. 양쪽 다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출처: 위와 같음.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아니다」와 다릅니다 — 저희가 못 찾았다는 뜻입니다.

30 · 점 검 표

정하기 전에 열여섯 가지

먼저 — 어느 경우인지

- ☐ 아이의 말을 끝까지 들었는가
- ☐ 힘든 것인지 계산인지 갈랐는가
- ☐ 힘든 것이면 상담 을 받아 보았는가
- ☐ 학업중단 숙려제 를 안내받았는가

다음 — 가운데 길이 있는지

- ☐ 휴학 이 되는지 학교에 물어봤는가
- ☐ 결석 이 쌓이고 있지 않은가
- ☐ 꿈드림 같은 기관을 알아봤는가
- ☐ 결정을 한 학기 미룰 수 있는가

그다음 — 무엇이 달하는지

- ☐ 가려는 대학이 검정고시를 받는지 확인했는가
- ☐ 성적 산출 방법 을 확인했는가
- ☐ 지역인재 를 쓸 계획이었는가
- ☐ 학교에 남아도 정시는 볼 수 있다 는 것을 아는가

마지막 — 돌아올 길

- ☐ 검정고시 응시 자격과 일정 을 공고에서 봤는가
- ☐ 돌아올 기한과 기준 을 정했는가
- ☐ 수업일수 3분의 2 제한을 아는가
- ☐ 혼자 하루를 짊 수 있는 아이인가

31 · 마지막으로

저희가 드릴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드릴 수 있는 것	드릴 수 없는 것
제도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 결정이 맞는지
무엇이 담히는지	대학이 어떻게 볼지
돌아올 길과 시점	수능을 얼마나 올릴 수 있을지
확인하실 자리	아이가 혼자 해낼지

오른쪽 칸을 자신 있게 말해 주는 곳이 있다면 근거를 물어보십시오. 저희는 그 근거를 못 찾았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맨 아랫줄은 부모님이 가장 잘 아십니다. 학교가 짜 주던 하루를 스스로 짊 수 있는 아이인가. 저희가 본 바로는 이 결정의 결과를 가른 것이 대개 그것이었습니다.

입시CUBE가 드리는 말씀

이 여섯 편을 쓰면서 가장 조심한 것은 겁을 주지도 부추기지도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 결정은 지금 많이 이야기되고, 이야기되는 것에 견줘 확인된 것이 아주 적습니다. 확인된 것만 담았고, 확인 못 한 것은 못 했다고 적었습니다. 결정은 가정이 하시는 것이고, 저희는 그 결정이 모르는 채로 이뤄지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32 · 자주 묻는 것

마지막으로 자주 하시는 질문

Q. 답임 선생님과 상의해도 될까요?

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학교가 절차를 아는 유일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휴학이 되는지, 숙려제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돌아올 때 절차가 어떤지 — **이건 학교에 물어야 답이 나옵니다.**

「말하면 붙잡을 것 같아서」 미루시는 경우가 있는데, 학교는 붙잡는 것이 일어기도 합니다. 숙려제 자체가 그러라고 만든 제도입니다.

그리고 붙잡히는 것이 나쁜 일만은 아닙니다. 한 번 더 생각하고 정한 결정이 대개 낫습니다.

다만 학교가 답하기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 대입 계산은 학교의 일이 아닙니다. 그건 따로 알아보셔야 합니다.

Q. 이미 자퇴했습니다.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순서를 드리겠습니다.

하나 — 시·도 교육청 검정고시 공고를 찾아 응시 자격과 다음 시험 날짜를 확인하십시오. 여기서 일정이 정해집니다.

둘 — 가려는 대학의 요강에서 「검정고시」를 찾아보십시오. 없으면 입학처에 전화하십시오.

셋 — 하루 계획을 종이에 적으십시오. 학교가 짜 주던 시간표가 없어졌습니다. 이걸 스스로 채우는 것이 이제 가장 큰 일입니다.

넷 — 꿈드림 같은 기관에 한 번 가 보십시오. 검정고시 준비와 진로 상담을 받을 수 있고, 혼자가 아니라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돌아올 길이 달힌 것이 아니라는 것도 기억하십시오.

한 줄로 남기면
힘든 것인지 계산인지 먼저 가르고, 가운데 길을 알아보고, 무엇이 닫히는지 세어 보고, 돌아올 시점을 정해 두십시오.

이 자료는 2026년 8월 기준 교육부 자료와 요강 집계를 정리한 것입니다. 검정고시 일정과 학적 절차는 시·도 교육청과 학교에 확인하십시오.

33 · 먼저 사실부터

고등학교는 넷으로 나뉩니다

고등학교를 「일반고냐 특목고냐」로만 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도는 넷으로 나뉩니다 — 일반고 · 특성화고 · 특목고 · 자율고. 그리고 특성화고에 다니는 학생이 168,465명입니다.

갈래	학교	학생	어떤 곳
일반고	1,609	981,354	대부분이 갑니다
특성화고	484	168,465	직업 458 · 대안 26
특목고	162	60,701	마이스터고 56곳이 여기
자율고	132	88,946	자공 99 · 자사 33

셋째 줄이 뜻밖이실 수 있습니다. 마이스터고(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는 특목고에 들어갑니다. 과학고·외고와 같은 칸입니다.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는 둘 다 직업 교육을 하지만 제도상 갈래가 다릅니다. 이게 전형과 대입에서 갑니다.

출처: 교육부 「2025년 교육기본통계」 표 1·표 2(2025년 4월 1일 기준). 산업수요맞춤형고(마이스터고)는 특목고 162개교 안에 든다.
공군항공과학고는 조사 대상에서 빠진다

34 · 무엇이 다른가

세 갈래를 나란히

	일반고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목적	보통 교육	직업 교육	산업 수요 맞춤
제도상	일반고	특성화고	특수목적고
입학	후기 · 대개 배정	전기	전기
졸업 뒤	대개 진학	취업과 진학	취업 중심
학교 수	1,609	484	56

셋째 줄이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는 전기입니다. 일반고보다 먼저 원서를 냅니다.

그래서 중3 가을에 이미 정해야 합니다. 일반고 원서를 낼 때쯤 알아보시면 늦습니다.

마이스터고가 다른 자리

마이스터고는 특목고라 학교 수가 적고 선발이 셉니다. 전국에 56곳입니다.

그리고 취업을 앞세운 학교입니다. 기업과 이어진 과정이 있고, 졸업 뒤 취업을 전제로 운영됩니다.

특성화고는 그보다 폭이 넓습니다. 취업하는 학생도 있고 진학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출처: 교육부 교육기본통계 및 시·도 교육청 고입 전형 기본계획. 전형 시기와 방식은 시도·학교마다 다릅니다.

35 · 가장 큰 오해

「공부 못하면 가는 곳」이 아닙니다

이 갈래에 대해 가장 자주 듣는 오해부터 풀어야 합니다.

이렇게 들으셨다면	사실은
「공부 못하면 가는 곳」	인기 학과는 경쟁이 셉니다 — 학교·학과마다 다릅니다
「대학은 못 간다」	진학하는 학생이 많습니다
「한번 가면 못 바꾼다」	전학·편입학 제도가 있습니다(P6)
「취업이 보장된다」	보장은 아닙니다 — 학교와 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맨 아랫줄도 오해입니다. 양쪽으로 다 오해가 있습니다 — 너무 낮춰 보시거나 너무 기대하시거나.

실제로 확인하실 것

「특성화고가 어떤가」는 답할 수 없는 물음입니다. 484개교가 다 다릅니다.

답할 수 있는 물음은 「이 학교 이 학과가 어떤가」입니다. 그건 학교알리미와 학교 설명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실 것은 졸업생 진로 현황입니다 — 취업률과 진학률이 공시돼 있습니다. 그 학교가 실제로 어느 쪽인지가 거기 나옵니다.

출처: 학교알리미 공시 항목 및 시·도 교육청 안내. 학교·학과마다 크게 다릅니다 — 개별 학교를 확인하십시오.

36 · 그래서 무엇을

정하기 전에 볼 것

차례	무엇을	어디서
1	졸업생 진로 현황	학교알리미
2	학과가 하는 일	학교 설명회·홈페이지
3	전형 시기와 방법	시·도 교육청 기본계획
4	진학할 경우의 길	P4·P5에서 다룹니다

4번을 미리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취업하려고 갔는데 마음이 바뀌어 진학하려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그때 문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고 가시는 것과 모르고 가시는 것은 다릅니다.

직업계고를 생각하실 때 여덟 가지

☐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가 제도상 다른 갈래 인 것을 아는가

☐ 둘 다 전기 라 일반고보다 먼저인 것을 아는가

☐ 그 학교의 졸업생 진로 현황 을 봤는가

☐ 취업률과 진학률 을 나눠 봤는가

☐ 학과가 실제로 무엇을 배우는지 알아봤는가

☐ 아이가 그 일에 관심 이 있는가

☐ 진학할 경우의 길 을 알아봤는가

☐ 「공부 못해서」가 이유가 아닌지 돌아봤는가

여덟째를 부탁드립니다. 도망치듯 고른 학교에서 잘 지내기는 어렵습니다. 가고 싶어서 가는 것과 밀려서 가는 것은 3년이 다릅니다.

입시CUBE가 드리는 말씀

저희 자료에서 이 갈래를 다루지 않고 있었던 것이 일흔여덟 편을 만들고 나서야 눈에 띄었습니다. 특성화고에 168,465명이 다니는데 고입 자료 여덟 편에 한 줄도 없었습니다. 그건 저희가 안 본 것이고, 이 여섯 편으로 메웁니다.

37 · 자주 묻는 것

직업계고에 대해 자주 하시는 질문

Q. 아이가 특성화고를 가고 싶다고 합니다. 말려야 할까요?

저희는 권하지도 말리지도 않습니다. 다만 무엇을 보고 정하는지는 확인하실 만합니다.

「그 일을 하고 싶어서」라면 좋은 이유입니다. 학과가 실제로 무엇을 배우고 어디로 가는지를 함께 알아보십시오.

「공부가 싫어서」라면 다시 보셔야 합니다. 특성화고도 공부를 합니다. 실습과 자격증 준비가 있고, 일반고보다 덜 힘든 곳이 아닙니다.

「내신이 안 나와서」라면 이견 계산이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일반전형에서 특성화고가 제외되는 자리가 있습니다(P4). 내신을 피하려다 문이 더 좁아질 수 있습니다.

세 이유의 결과가 다릅니다. 어느 것인지 먼저 보십시오.

Q.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 중 어디가 나은가요?

목적이 다르니 나은 쪽이 따로 없습니다.

마이스터고는 취업을 앞세운 학교입니다. 전국에 56곳뿐이라 선발이 세고, 기업과 이어진 과정이 있습니다. 졸업하고 바로 일하겠다는 계획이면 맞습니다.

특성화고는 폭이 넓습니다. 484개교가 있고 학교마다 성격이 다릅니다. 취업도 진학도 열려 있습니다.

진학을 생각하고 계시면 특성화고 폭이 대개 유연합니다. 다만 학교마다 다르니 그 학교의 진로 현황을 보십시오.

그리고 둘 다 전기라 한 곳만 고르셔야 합니다.

한 줄로 남기면
고등학교는 넷이고, 마이스터고는 특목고입니다. 「특성화고가 어떤가」가 아니라 「이 학교 이 학과가 어떤가」를 보십시오.
이 자료는 2026년 8월 기준 교육부 교육기본통계와 시·도 교육청 안내를 정리한 것입니다. 학교·학과마다 크게 다릅니다.

38 · 먼저 사실부터

전기입니다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는 전기 모집입니다. 일반고보다 먼저 원서를 냅니다. 그래서 중3 가을에 이미 정해져 있어야 하고, 일반고 원서를 쓸 때쯤 알아보시면 늦습니다.

갈래	군	대략 언제
영재학교	별도	5월
과학고	전기	8월
마이스터고	전기	가을 — 일반고보다 먼저
특성화고	전기	가을~겨울
외고·국제고·자사고	후기	12월

군이 같으면 한 번뿐입니다. 마이스터고와 과학고는 둘 다 전기라 함께 쓸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와 중복지원 규칙은 시·도 교육청이 해마다 내는 「고입 전형 기본계획」에 있습니다. 시도마다 다르니 그것을 보셔야 합니다.

출처: 시·도 교육청 고입 전형 기본계획 및 각 학교 요강(2026년 8월 기준). 군 구분과 일정은 시도·해마다 다릅니다.

39 · 무엇을 보나

내신만이 아닙니다

직업계고 전형은 학교마다 다릅니다. 다만 쓰이는 재료는 대체로 이 넷입니다.

무엇	어떻게 쓰이나
중학교 내신	반영 학기와 교과는 학교마다 다릅니다
출결	미인정 결석에 감점 을 두는 곳이 있습니다
면접	지원 동기와 그 일에 대한 관심
실기·적성	학과에 따라 있습니다

셋째 줄이 특목고 면접과 다릅니다. 과학고·외고 면접은 **학업과 자기주도학습**을 보는데, 직업계고 면접은 「**왜 이 학과인가**」를 봅니다.

그래서 학과가 실제로 무엇을 하는지 알아보고 가는 것이 면접 준비의 절반입니다.

내신은 어떻게 보나

일반고 진학과 셈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학교와 학과에 따라 특정 교과에 무게**를 두는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계·전기 계열은 수학·과학, 상업 계열은 국어·영어·사회 쪽에 무게를 두는 식입니다. **이건 학교 요강에 적혀 있고, 학교마다 다릅니다.**

「**내신이 몇 등급이면 되나요**」에 답이 없는 까닭입니다. **484개교가 다 다릅니다.**

출처: 각 학교 입학전형 요강 및 시·도 교육청 기본계획. 반영 방법은 **학교·학과마다 다릅니다** — 요강을 직접 확인하십시오.

40 · 학과를 고르는 것

학교보다 학과입니다

직업계고에서는 「어느 학교」보다 「어느 학과」가 큼니다. 같은 학교 안에서도 학과마다 배우는 것과 가는 곳이 다릅니다.

확인하실 것	어디서
무엇을 배우나	학교 홈페이지 교육과정표
어떤 자격증	학과 안내 · 설명회
졸업생이 어디로	학교알리미 졸업생 진로 현황
보통교과가 얼마나	교육과정표 — 진학할 때 걸립니다

맨 아랫줄을 특히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대학 일반전형은 「반영교과」 조건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P4).

보통교과 편성이 얇은 학과는 나중에 진학할 때 계산이 안 되는 자리가 생깁니다.

취업만 생각하고 계셔도 이건 보셔야 합니다. 3년 뒤에 마음이 바뀔 수 있고, 그때 되돌리기 어려운 것이 이 자리입니다.

설명회에서 물어보실 것

「이 학과 졸업생은 주로 어디로 갑니까」 「취업과 진학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대학에 가려면 어떤 길이 있습니까」 세 물음에 구체적으로 답이 나오는 학교가 그 부분을 실제로 챙기는 학교입니다.

출처: 학교알리미 공시 항목 및 각 학교 안내. 학과마다 크게 다릅니다.

41 · 그래서 무엇을

중3의 차례와 점검표

시기	무엇을
중3 봄	어떤 일에 관심이 있는지 이야기합니다
여름	학교·학과를 셋쯤 추립니다
9월	요강이 나옵니다 — 반영 방법 확인
가을	설명회 · 원서

첫째 줄이 이 전형의 출발점입니다. 학교부터 고르시면 순서가 거꾸로입니다.

「어떤 일을 해 보고 싶은가」가 먼저이고, 그 일을 배우는 학과를 찾고, 그 학과가 있는 학교를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직업계고 원서 전 확인하실 여덟 가지

☐ 전기 라 일반고보다 먼저인 것을 아는가

☐ 중복지원 규칙 을 기본계획에서 확인했는가

☐ 지망 학교의 내신 반영 방법 을 봤는가

☐ 출결 감점 이 있는지 봤는가

☐ 면접 이 있는지, 무엇을 묻는지 아는가

☐ 학과가 무엇을 배우는지 알아봤는가

☐ 졸업생 진로 현황 을 봤는가

☐ 보통교과 편성 을 확인했는가

여덟째가 3년 뒤에 걸립니다. 진학을 생각하게 됐을 때 계산이 되는 학생부인지가 학과의 교육과정표에서 이미 정해집니다.

입시CUBE가 드리는 말씀

「전기라 먼저 낸다」는 것이 이 전형에서 가장 실무적인 사실입니다. 떨어지면 후기 일반고로 가면 되지만, 그때는 이미 다른 준비를 못 한 상태가 됩니다. 붙었을 때와 떨어졌을 때를 둘 다 정해 두고 넣으십시오.

42 · 자주 묻는 것

직업계고 전형에 대해 자주 하시는 질문

Q. 떨어지면 일반고에 갈 수 있나요?

대개 갈 수 있습니다. 전기에서 떨어지면 후기 일반고 배정에 들어갑니다.

다만 시·도마다 규칙이 다릅니다. 그 해 「고입 전형 기본계획」에 적혀 있고, 중학교에서도 안내합니다.

그리고 중복지원 제한을 꼭 확인하십시오. 같은 전기 안에서 두 곳을 못 쓰는 경우가 있고, 어기면 불합격 처리됩니다.

「떨어져도 괜찮다」로 가볍게 넣지는 마십시오. 가고 싶은 곳에 넣는 것이 맞습니다 — 붙으면 3년을 다녀야 하니까요.

Q. 중학교 성적이 나쁘는데 지원해도 될까요?

학교와 학과에 따라 다릅니다. 인기 학과는 경쟁이 셉니다.

그리고 성적이 나빠서 지원하시는 것이라면 한 번 더 보십시오. 특성화고도 공부를 합니다. 실습이 있고 자격증 준비가 있습니다. 「공부를 덜 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 일에 관심이 있어서 가시는 것이라면 성적이 아쉬워도 잘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밀려서 가시면 3년이 힘듭니다. 면접에서도 그게 드러납니다 — 「왜 이 학과인가」에 답이 없으면 어렵습니다.

성적보다 이유를 먼저 보십시오.

한 줄로 남기면

전기라 먼저 냅니다. 학교보다 학과이고, 보통교과 편성을 함께 보십시오.

이 자료는 2026년 8월 기준 시·도 교육청 기본계획과 학교 안내를 정리한 것입니다. 전형 방법·일정·중복지원 규칙은 시도와 학교마다 다릅니다.

43 · 먼저 사실부터

두 갈래가 다 있습니다

「특성화고는 취업, 일반고는 진학」이라는 구분은 지금 맞지 않습니다. 특성화고에서도 진학하는 학생이 많고, 학교마다 크게 다릅니다. 그래서 「특성화고 졸업생은 어디로 가나」에는 답이 없고, 「이 학교 이 학과 졸업생은 어디로 가나」에만 답이 있습니다.

저희는 전국 취업률·진학률을 공표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숫자를 실지 않습니다.

대신 학교마다 공시하게 되어 있고,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그 보는 법을 이 편에 적었습니다.

숫자를 안 실는 까닭

인터넷에는 「특성화고 취업률 몇 %」 같은 숫자가 여럿 돕니다. 서로 다르고, 어느 해 어떤 기준인지 밝히지 않은 것이 많습니다.

저희는 교육부 원문에서 확인한 것만 실습니다. 이번에는 못 찾았고, 그래서 안 실습니다.

그리고 전국 평균은 이 결정에 별로 쓸모가 없습니다. 484개교의 평균이고, 부모님께 필요한 것은 그 학교의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어디서 보나	무엇이 있나
학교알리미	졸업생 진로 현황 — 취업·진학·기타
학교 홈페이지	학과별 안내 · 협약 기업
학교 설명회	구체적인 사례

출처: 학교알리미 공시 항목. 전국 취업률·진학률은 공표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해 실지 않았습니다.

44 · 공시를 읽는 법

숫자를 나눠 보십시오

「졸업생 진로 현황」에는 몇 갈래로 나뉜 숫자가 나옵니다. 그냥 보시면 안 되고 나눠 보셔야 합니다.

이렇게 보시고	이걸 물어보십시오
취업률이 높다	어디에 취업했는가 — 규모와 분야
진학률이 높다	어느 대학·학과로 갔는가
기타가 많다	무엇이 기타인가 — 여기가 중요합니다

맨 아랫줄을 놓치지 마십시오. 취업도 진학도 아닌 칸이 큰 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물어보실 자리라는 뜻입니다.

한 해만 보지 마십시오

3년 흐름으로 보십시오. 한 해는 우연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졸업생 수로 나눠 보십시오. 절대 수는 학교 크기를 따라갑니다 — G 시리즈에서 다른 방법이 여기에도 그대로 쓰입니다.

학과별로 보실 수 있으면 그게 가장 낫습니다

학교 전체 숫자는 학과들이 섞인 값입니다. 같은 학교에서도 학과마다 완전히 다릅니다.

학과별 자료는 대개 학교에 물어야 합니다. 설명회에서 여쭙보시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출처: 학교알리미 공시 항목. 공시 항목과 갱신 시기는 해마다 다릅니다.

45 · 진학을 생각한다면

미리 봐 두실 것

3년 뒤에 진학을 생각하게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흔한 일이고, 그때 준비가 되어 있느냐가 갈립니다.

	미리 볼 것	왜
1	보통교과 편성	대학 반영교과 계산에 걸립니다
2	내신 관리	취업만 생각해도 놓지 마십시오
3	학생부	학종을 쓸 때 필요합니다
4	특별전형	P5에서 다룹니다

1번이 1학년에 정해집니다. 학과의 교육과정표에 이미 적혀 있습니다. 입학 전에 확인하시면 학과 선택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2번을 특히 말씀드립니다. 「취업할 거니까 내신은 상관없다」로 두시면 3년 뒤에 선택지가 없습니다.

반대로 내신을 챙겨 두면 취업이든 진학이든 다 열려 있습니다. 취업에서도 성적을 보는 곳이 있습니다.

출처: 각 학교 교육과정표 및 대학 수시 모집요강. P4·P5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46 · 그래서 무엇을

3년을 어떻게 쓸 것인가

학년	무엇을
1학년	보통교과 편성을 확인하고 내신을 놓지 않습니다
2학년	실습과 자격증 · 방향을 좁힙니다
3학년	취업이면 현장실습, 진학이면 전형 확인

둘 중 하나를 일찍 접지 않는 것이 이 편의 결론입니다. 2학년까지는 둘 다 열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확인하실 여덟 가지

☐ 그 학교의 졸업생 진로 현황 을 봤는가

☐ 3년 흐름 으로 봤는가

☐ 졸업생 수로 나눠 봤는가

☐ 기타 칸이 큰지 봤는가

☐ 학과별 로 물어봤는가

☐ 보통교과 편성 을 확인했는가

☐ 내신을 놓지 않고 있는가

☐ 취업과 진학 중 하나를 일찍 접지 않았는가

일곱째가 3년 뒤에 가장 크게 갑니다. 내신은 취업에서도 진학에서도 쓰입니다.

입시CUBE가 드리는 말씀

이 편에 숫자가 적은 것은 저희가 확인한 전국 통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있는 것처럼 쓰지 않겠습니다. 대신 학교마다 공시된 자료가 있고, 그건 누구나 보실 수 있습니다. 「특성화고가 어떤가」를 인터넷에서 찾으시는 것보다 「그 학교 공시」를 여시는 편이 훨씬 정확합니다.

47 · 자주 묻는 것

졸업 뒤에 대해 자주 하시는 질문

Q. 특성화고에서 4년제 대학에 가는 것이 어렵나요?

일반고보다 문이 좁은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어렵다」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나눠 봐야 합니다.

자격 문제 — 일반전형에서 제외하거나 반영교과 조건에 걸리는 자리가 있습니다(P4).

준비 문제 — 보통교과 시간이 적어 수능 준비가 일반고보다 불리합니다.

대신 열린 문도 있습니다 — 특성화고 특별전형과 재직자전형이 그것입니다(P5). 일반전형과 다른 자리에서 거릅니다.

그러니 「어렵다」보다 「다른 문으로 간다」가 정확합니다. 그 문이 어디에 있는지 아는 것이 관건입니다.

Q. 현장실습은 꼭 해야 하나요?

학교와 학과, 그리고 진로 계획에 따라 다릅니다.

취업을 생각하신다면 현장실습이 취업으로 이어지는 경로인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가 연결하는 기업이 있고, 그쪽으로 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진학을 생각하신다면 3학년 시기가 겹칩니다. 학교와 상의해 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실습은 학생부에 기록됩니다** — 유형·직무분야·기간·내용이 세특에 적힙니다. 진학에서도 읽히는 자료가 됩니다.

운영은 학교와 학과마다 다릅니다. 담임 선생님이나 취업 담당 선생님께 여쭙보십시오.

한 줄로 남기면

「특성화고 졸업생은 어디로 가나」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 학교 공시를 3년 흐름으로 보십시오.

이 자료는 2026년 8월 기준 학교알리미 공시 항목과 학교 안내를 정리한 것입니다. 전국 취업률·진학률은 확인하지 못해 실지 않았습니다. 학교·학과마다 크게 다릅니다.

48 · 먼저 사실부터**요강을 세어 보았습니다**

「특성화고에서도 대학에 갈 수 있다」는 맞는 말입니다. 다만 어느 문으로 가는지가 다릅니다. 저희가 2027 수시 요강 6,482줄의 지원 자격 문장을 세어 보니 뜻밖의 모양이 나왔습니다.

무엇을 썼나	줄	대학
특성화고를 언급한 자격문	658	16
제외로 읽히는 줄	173	4
대상으로 삼는 줄	0	—

맨 아랫줄이 이 편의 출발점입니다. 일반전형에서 특성화고를 대상으로 삼는 줄은 0줄이었다. 언급은 대체로 「제외」 쪽이다.

다만 이걸 「특성화고는 대학에 못 간다」로 읽으시면 안 됩니다. 저희 자료의 한계 때문이기도 합니다 — 다음 면에서 밝히겠습니다.

출처: 2027학년도 수시 모집요강 6,482줄 / 41개 대학의 지원자격 문장을 저희가 직접 센 것(2026년 8월 기준). **날말로 센 것이라 표현이 다른 요강은 빠졌을 수 있다. 그리고 우리 자료는 42개 대학 일반전형 중심이라 특별전형·재직자전형 요강이 들어 있지 않다**

49 · 솔직하게

저희 자료의 한계

위 표를 그대로 믿으시면 안 되는 까닭이 있습니다. 저희 요강 자료는 42개 대학의 일반전형 중심이라 특별전형·재직자전형 요강이 아예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대상으로 삼는 줄이 0」이라는 것은 「특성화고를 대상으로 하는 전형이 없다」가 아니라 「저희가 본 일반전형에는 없다」는 뜻입니다.

저희 자료로 말할 수 있는 것	말할 수 없는 것
일반전형에서 제외되는 자리가 있다	특별전형이 얼마나 있는지
제외가 교과에 몰려 있다	그 전형의 경쟁률·합격선
어떤 문장으로 막는지	대학별 실제 운영

이걸 밝히지 않고 표만 내면 잘못 읽히기 쉬워서 적어 둡니다. P5에서 특별전형 쪽을 따로 다룹니다.

저희가 가진 자료의 범위를 밝힌 면입니다. 특별전형·재직자전형 요강은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50 · 어떻게 막는가

문장을 읽는 법

막는 문장이 두 가지 꼴입니다. 뒤쪽이 놓치기 쉽습니다.

꼴	어떻게 적혀 있나
대놓고	「특성화고 졸업(예정)자 제외」
둘러서	「학교생활기록부 반영교과 중 해당 세부과목이 없는 경우 지원할 수 없음」

겉으로는 뒤쪽이 부드러워 보이는데 실질적으로는 더 넓게 막습니다. 대학이 국어·수학·영어·사회·과학을 반영 교과로 정해 두면, 그 교과의 과목을 안 들은 학생은 계산 자체가 안 됩니다.

특성화고는 전문교과 비중이 큼니다. 보통교과 과목이 적으면 여기에 걸립니다. 학교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정이 다른 것입니다.

제외가 교과에 몰린 까닭

저희가 센 제외 173줄 가운데 교과가 159줄, 학종이 14줄이었습니다.

교과는 등급을 계산하는 전형이라 계산할 과목이 없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학종은 읽는 전형이라 상대적으로 덜 막혀 있습니다.

출처: 위와 같음. 낱말로 센 것이라 표현이 다른 요강은 빠졌을 수 있다. 그리고 우리 자료는 42개 대학 일반전형 중심이라 특별전형·재직자전형 요강이 들어 있지 않다

51 · 그래서 무엇을

확인하는 순서

차례	무엇을
1	가려는 대학의 지원 자격 을 읽습니다
2	「 특성화고 」라는 낱말을 찾습니다
3	「 반영교과 」조건을 찾습니다 — 돌려서 막는 자리
4	특별전형 이 있는지 봅니다 (P5)

3번이 실제로 가장 자주 걸리는 자리입니다. 「특성화고」라는 낱말이 없어도 막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학교 학생부의 교과 구성으로 이 대학의 계산이 되는가」를 학교 진학 담당 선생님께 여쭙보시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확인하실 여덟 가지

☐ 가려는 대학의 **지원 자격**을 직접 읽었는가

☐ 「**특성화고**」 낱말을 찾아봤는가

☐ 「**반영교과**」조건이 있는지 봤는가

☐ 우리 학생부에 **그 교과 과목이 있는가**

☐ **교과보다 학종**이 덜 막힌 것을 아는가

☐ **특별전형**이 있는지 알아봤는가

☐ 학교 **진학 담당 선생님**께 여쭙봤는가

☐ 애매하면 **입학처에 전화**했는가

일곱째를 먼저 하십시오. 직업계고에는 진학 상담을 맡는 선생님이 계시고, 해마다 같은 문제를 다루십니다. 바깥보다 정확합니다.

입시CUBE가 드리는 말씀

이 편에서 저희가 가장 조심한 것은 숫자를 크게 보이게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대상 0줄」은 세계 들리지만, 저희 자료가 일반전형만 담고 있어서이기도 합니다. 그걸 밝히지 않고 표만 내면 겁을 주는 자료가 됩니다. 저희가 못 본 자리가 있다는 것을 함께 적었습니다.

52 · 자주 묻는 것

대입 자격에 대해 자주 하시는 질문

Q. 특성화고에서 일반전형으로 대학 간 학생이 있는데요?

있습니다. 모든 대학이 막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센 것은 「특성화고를 언급한 658줄」 이고, 그중 제외가 173줄이었습니다. 언급이 아예 없는 줄이 훨씬 많습니다.

언급이 없으면 대체로 일반 조건대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영교과」 조건에 걸릴 수 있으니 그건 따로 보셔야 합니다.

그러니 정확히 말하면 「특성화고는 일반전형이 막힌다」가 아니라 「막아 둔 자리가 있으니 확인해야 한다」입니다.

확인 없이 「된다」고 보시는 것과 확인 없이 「안 된다」고 접으시는 것 둘 다 손해입니다.

Q. 그럼 내신을 잘 받으면 되는 것 아닌가요?

내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계산할 과목이 있느냐가 먼저입니다.

대학이 국어·수학·영어·사회·과학을 반영 교과로 정해 두면 그 교과의 과목을 이수했어야 계산이 됩니다. 전문교과 성적이 아무리 좋아도 그 칸에는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확인하실 것이 「내신 등급」이 아니라 「우리 학생부에 그 교과 과목이 있는가」입니다.

학교마다 보통교과 편성이 다릅니다. 그건 학교 교육과정표에 나와 있고, 진학 담당 선생님이 아십니다.

1학년 때 확인하시면 과목 선택으로 손덜 여지가 있고, 3학년에 아시면 늦습니다.

한 줄로 남기면

막는 문장이 두 줄이고, 돌려서 막는 「반영교과」 조건이 더 넓습니다. 학교 진학 담당 선생님께 먼저 여쭙보십시오.

이 자료는 2026년 8월 기준 2027학년도 수시 모집요강을 저희가 켜 것입니다. 낱말로 켜 것이라 표현이 다른 요강은 빠졌을 수 있다. 그리고 우리 자료는 42개 대학 일반전형 중심이라 특별전형·재직자전형 요강이 들어 있지 않다

53 · 먼저 사실부터**정원 밖에 문이 있습니다**

앞 편에서 일반전형이 막히는 자리를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대학이 닫혔다」는 뜻은 아닙니다. 정원 외라 일반전형과 따로 뽑는다. 일반전형에서 막혔다고 대학이 닫힌 것이 아니다.

전형	누가 쓸 수 있나
특성화고교졸업자 특별전형	특성화고를 졸업(예정)한 사람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특별전형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또는 직업교육계열 특성화고를 졸업하고 3년 이상 산업체에 재직한 사람

둘 다 정원 외입니다. 일반전형 정원과 별도로 뽑습니다.

그리고 인원 기준이 다릅니다 — 특성화고교졸업자 전형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특별전형과 합쳐 해당 학년 입학정원의 5.5% 이내이고, 재직자 전형은 .

모집단위별 총학생수 제한이 없다

출처: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및 [별표 1],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2026년 8월 기준). 어느 대학이 이 전형을 두는지, 인원이 얼마인지는 대학마다 다르다. 우리 요강 자료는 일반전형 중심이라 이 전형이 들어 있지 않다. 대학별 모집요강과 어디가에서 직접 확인해야 한다.

54 · 두 전형이 다릅니다

언제 쓰는가

특성화고교졸업자		재직자
언제	졸업 직후	3년 일한 뒤
요건	특성화고 졸업(예정)	졸업 + 산업체 3년 이상 재직
인원	다른 전형과 합쳐 5.5% 이내	제한 없음
학교 형태	주간 과정	야간·주말 과정이 많습니다

첫째 줄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바로 대학에 갈 것인가, 일하다 갈 것인가입니다.

셋째 줄도 크게 다릅니다. 특성화고교졸업자 전형은 다른 정원 외 전형과 자리를 나눠 씁니다. 재직자 전형은 모집단위별 총학생수 제한이 없어 대학이 두면 자리가 상대적으로 넓습니다.

재직자 전형이 넓어졌습니다

대상이 넓어졌습니다 — 일반고나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직업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까지 들어오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직업계고 졸업자만 쓸 수 있었는데, 일반고에서 직업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도 들어오게 됐습니다.

다만 이건 제도의 틀이고, 실제로 어느 대학이 어떤 요건으로 뽑는지는 대학마다 다릅니다.

출처: 고등교육법 시행령 및 대교협 기본사항. 대학별 운영은 모집요강을 확인하십시오.

55 · 솔직하게

저희가 못 세는 자리

이 편에는 저희 집계 숫자가 없습니다. 어느 대학이 이 전형을 두는지, 인원이 얼마인지는 대학마다 다르다. 우리
요강 자료는 일반전형 중심이라 이 전형이 들어 있지 않다. 대학별 모집요강과 어디가에서 직접 확인해야 한다.

그래서 「몇 개 대학이 이 전형을 두는지」, 「인원이 얼마인지」를 저희가 세어 드릴 수 없습니다.

대신 어디서 보시면 되는지를 적어 두겠습니다.

어디서	무엇을
대학 입학처	모집요강 — 정원 외 특별전형 항목
어디가 (adiga.kr)	전형 검색 · 전년도 결과
학교 진학 담당	해마다 이 일을 하십니다

맨 아랫줄을 먼저 하십시오. 직업계고에는 이 전형으로 진학시킨 경험이 쌓인 선생님이 계십니다. 어느 대학이 어떤
요건인지 실제로 아십니다.

인터넷보다 정확하고, 우리 학교 학생부 사정까지 아는 자리입니다.

저희가 가진 자료의 범위를 밝힌 면입니다. 요강 집계는 일반전형 중심이라 이 전형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56 · 그래서 무엇을

언제 무엇을 확인하나

시기	무엇을
1학년	보통교과 편성과 내신을 챙깁니다
2학년	진학할지 방향을 좁힙니다
3학년 봄	진학 담당 선생님과 전형을 정합니다
3학년 9월	요강 확인 · 원서
졸업 뒤	재직자 전형은 3년 뒤에 열립니다

맨 아랫줄이 이 편에서 가장 마음이 놓이는 자리입니다. 지금 진학하지 않아도 길이 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하다가 3년이 지나면 재직자 전형이 열립니다. 그때는 인원 제한도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대학을 못 가면 끝」이라는 계산은 맞지 않습니다. 이 갈래에는 뒤에 열리는 문이 따로 있습니다.

확인하실 여덟 가지

- ☐ 정원 외 특별전형 이 있다는 것을 아는가
- ☐ 특성화고교졸업자 전형이 5.5% 안 인 것을 아는가
- ☐ 재직자 전형은 인원 제한이 없다 는 것을 아는가
- ☐ 재직자 요건이 3년 재직 인 것을 아는가
- ☐ 가려는 대학이 이 전형을 두는지 봤는가
- ☐ 어디가 에서 찾아봤는가
- ☐ 학교 진학 담당 선생님 께 여쭙봤는가
- ☐ 지금 안 가도 뒤에 문이 있다 는 것을 아는가

일곱째가 이 편에서 가장 값이 큼니다. 이 전형은 자료가 흩어져 있어 혼자 찾기 어렵습니다. 학교에 아는 분이 계십니다.

입시CUBE가 드리는 말씀

저희가 이 편에 숫자를 못 넣은 것이 이 자료의 한계입니다. 저희 요강 자료가 일반전형 중심이라 이 전형이 안 들어 있습니다. 그걸 모른 척하고 쓸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이 전형 요강을 모으면 다른 편들처럼 세어서 다시 내겠습니다. 그때까지는 학교와 어디가가 정확합니다.

57 · 자주 묻는 것

특별전형에 대해 자주 하시는 질문

Q. 정원 외라 학위가 다른가요?

다르지 않습니다. 같은 대학, 같은 학과, 같은 학위입니다.

「정원 외」는 뽑는 자리를 세는 방식일 뿐입니다. 정원 안에서 뽑느냐 밖에서 뽑느냐의 차이이고, 입학한 뒤에는 구분이 없습니다.

다만 재직자 전형으로 들어가는 과정은 야간이나 주말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하면서 다니는 것을 전제로 만든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건 학위가 다른 것이 아니라 수업 시간이 다른 것입니다. 어떤 과정인지는 대학 요강에 적혀 있습니다.

Q. 재직 3년은 어떻게 세나요?

대학마다 확인 방법이 다릅니다. 이걸 반드시 그 대학에 물어보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4대 보험 가입 기록이나 재직증명서로 확인합니다. 기준일이 언제인지도 대학마다 다릅니다 — 원서 접수일인지 입학일인지가 갈립니다.

그리고 어떤 곳이 「산업체」로 인정되는지도 대학이 정합니다. 아르바이트나 단기 근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 「3년만 일하면 된다」로 두지 마시고, 일하기 시작하실 때 가려는 대학의 요건을 한 번 확인해 두십시오.

3년 뒤에 요건이 안 맞는 것을 알면 3년이 아깝습니다.

한 줄로 남기면

정원 외에 두 개의 문이 있습니다 — 졸업 직후의 특성화고교졸업자 전형과 3년 뒤의 재직자 전형입니다.

이 자료는 2026년 8월 기준 고등교육법 시행령과 대교협 기본사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대학별 운영·요건·인원은 모집요강에 따르며 해마다 바뀝니다.

58 · 먼저 사실부터**길이 여럿 있습니다**

「한번 특성화고에 가면 못 바꾼다」는 오해가 널리 있습니다. 제도에는 바꾸는 길이 여럿 있습니다. 다만 시점이 정해져 있고, 학교 사정에 따라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길	어떤 경우
학과 변경	같은 학교 안에서 학과를 옮깁니다
전학	다른 학교로 — 일반고로도 갑니다
편입학	학업을 쉬었다가 다시
진로 변경	학교는 그대로 두고 진학으로 방향만

맨 아랫줄이 가장 흔하고 가장 쉬운 길입니다. 학교를 바꾸지 않고도 진학으로 방향을 틀 수 있습니다.

먼저 이것부터 생각해 보시고, 그래도 안 되면 앞의 셋을 보시는 순서를 권합니다.

출처: 교육부 학생부 기재요령 [별표 7] 학적처리 용어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2026년 8월 기준). 실제 허가와 절차는 학교와 시도교육청에 따른다. 학교에 직접 확인해야 한다.

59 · 가장 쉬운 길

학교를 바꾸지 않는 것

「취업하려고 갔는데 진학하고 싶어졌다」 는 이 갈래에서 가장 흔한 마음의 변화입니다. 그런데 이건 학교를 바꿔야 하는 일이 아닙니다.

	무엇을	왜
1	내신을 챙깁니다	진학의 바탕입니다
2	보통교과를 확인합니다	반영교과 계산에 걸립니다
3	학생부를 채웁니다	학종과 특별전형에 씁니다
4	특별전형을 알아봅니다	P5에서 다뤘습니다

2번에서 막히면 그때 학교를 바꾸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교과 과목이 너무 적어 계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그 전에 학교에 물어보십시오. 선택 과목으로 보통교과를 더 들을 수 있는 경우가 있고, 공동교육과정으로 채우는 길도 있습니다.

학과 변경도 학교 안의 길입니다

같은 학교에서 학과를 옮기는 것은 전학보다 절차가 가볍습니다.

다만 학과마다 정원이 있어 자리가 있어야 하고, 학교 학칙에 따릅니다. 입니다.담임 선생님께 여쭙보시는 것이 시작

출처: 각 학교 학칙 및 교육과정 운영. 학과 변경 가능 여부와 시기는 학교마다 다릅니다.

60 · 전학

시점이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고로 전학하는 것도 됩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이 걸리나	어떻게
받을 자리	가려는 학교에 정원 여유 가 있어야 합니다
시점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 남아야 합니다
출석 합산	전출교와 전입교의 출석을 합쳐 셉니다
교육과정	배운 과목이 달라 이수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둘째 줄이 N5에서도 나온 그 규칙입니다. 입학·편입학은 당해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 남은 시점까지 수시로 입급할 수 있다(시행령 제50조·제89조)

그리고 **셋째 줄** — 전출교와 전입교의 출석일수 합이 전입교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그 학년을 수료할 수 있습니다.

넷째 줄이 실무적으로 가장 까다롭습니다

특성화고는 전문교과 비중이 큼니다. 일반고로 옮기면 이수한 과목이 일반고 교육과정과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고교학점제에서는 이게 더 까다로워집니다 —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채웠는지를 다시 봐야 합니다.

그러니 **전학 전에 두 학교의 교육과정을 견줘** 보셔야 합니다. **이건 학교 교무실에서 확인하는 일입니다.**

출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제89조 및 기재요령 별표 7. 전학 가능 여부와 절차는 학교·시도교육청에 따릅니다.

61 · 그래서 무엇을

순서와 점검표

차례	무엇을
1	학교를 안 바꾸고 되는지 봅니다 — 진로 변경
2	보통교과를 더 들을 수 있는지 물어봅니다
3	같은 학교 학과 변경이 되는지 봅니다
4	그래도 안 되면 전학을 알아봅니다

이 순서를 지키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가벼운 것부터 무거운 것 순서입니다.

전학은 새 학교에 다시 적응해야 하고, 관계도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학적 서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방향을 바꾸실 때 확인하실 여덟 가지

- ☐ 바꾸려는 것이 **학교인지 진로인지** 갈랐는가
- ☐ 학교를 **안 바꾸고** 되는 방법을 알아봤는가
- ☐ **보통교과** 를 더 들을 수 있는지 물어봤는가
- ☐ **공동교육과정** 을 알아봤는가
- ☐ **학과 변경** 이 되는지 물어봤는가
- ☐ **수업일수 3분의 2** 제한을 아는가
- ☐ 두 학교의 **교육과정** 을 건줘 봤는가
- ☐ **특별전형** 이 있다는 것을 아는가 (P5)

여덟째를 마지막에 다시 넣었습니다. 전학이 목적이면 전학하지 않고도 갈 길이 있습니다. 학교를 옮기기 전에 그것부터 보십시오.

입시CUBE가 드리는 말씀

이 여섯 편을 쓰면서 가장 자주 확인한 것은 「**달혀 있다고 알려진 것 가운데 실제로 달힌 것이 얼마나 되는가**」였습니다. 생각보다 적었습니다. 일반전형에 막힌 자리가 있고, 정원 외에 문이 있고, 3년 뒤에 열리는 문이 또 있고, 바꾸는 길도 있습니다. 다만 어느 것도 저절로 알게 되지 않습니다 — 물어봐야 알게 되는 것들이고, 그래서 이 여섯 편을 만들었습니다.

62 · 자주 묻는 것

방향 변경에 대해 자주 하시는 질문

Q. 1학년 때 전학하는 것이 나올까요?

시점만 보면 이룰수록 낮습니다. 이수 과목이 적게 쌓였을 때 옮기는 편이 어긋남이 적습니다.

그런데 1학년에 「안 맞는다」고 느끼는 것은 학과가 안 맞는 것인지 적응이 안 된 것인지 갈리지 않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3월에 힘든 것은 어느 학교나 그렇습니다. 한 학기를 지내 보고 그때도 같은 생각이면 그건 적응 문제가 아닐 가능성이 큼니다.

그러니 1학기를 지내 보시고, 여름에 정하시는 편을 권합니다. 2학기 전학은 시점 조건에도 여유가 있습니다.

다만 아이가 학교에 가는 것 자체를 힘들어한다면 그건 다른 문제이고, 먼저 상담을 받아 보십시오(O5).

Q. 일반고로 전학하면 내신이 불리해지지 않나요?

단정할 수 없습니다. 두 방향이 다 있습니다.

불리해질 수 있는 쪽 — 일반고는 보통교과에서 겨루는 학생이 많고 준비된 학생도 많습니다. 같은 실력이라도 등급이 밀릴 수 있습니다.

나아질 수 있는 쪽 — 대학이 계산할 보통교과 과목이 생깁니다. 특성화고에서는 아예 계산이 안 되던 자리가 열릴 수 있습니다.

등급이 조금 나빠도 계산이 되는 것과 등급이 좋아도 계산이 안 되는 것은 다릅니다.

그러니 「내신이 불리해진다」만 보시지 말고 「어느 전형을 쓸 수 있게 되는가」를 함께 보셔야 합니다.

이건 학교 진학 담당 선생님과 상의하실 일입니다.

한 줄로 남기면

바꾸는 길이 여럿 있고, 학교를 안 바꾸고 되는 것부터 보십시오. 전학은 수업일수의 3분의 2 안입니다.

이 자료는 2026년 8월 기준 교육부 자료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정리한 것입니다. 전학·학과 변경 가능 여부와 절차는 학교와 시도교육청에 따릅니다.

63 · 닫으며

한 줄로 남기면

여기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 전체를 한 줄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닫혀 있다고 알려진 것 가운데 실제로 닫힌 것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다만 어느 것도 저절로 알게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책에 적힌 것 가운데 상담이 필요한 것은 많지 않습니다. 요강을 읽는 일, 달력에 날짜를 찍는 일, 등급을 다시 계산해 보는 일 — 대부분 집에서 하실 수 있고, 돈이 들지 않습니다.

그것들을 해 보신 뒤에도 남는 질문이 있으실 때, 그때 저희를 찾아 주십시오. 그런 질문에는 저희가 값을 합니다.

그리고 이 책은 마음껏 나눠 주십시오.

인쇄하셔도 되고, 파일로 보내셔도 되고, 학교나 모임에서 쓰셔도 됩니다. 출처만 남겨 주시면 됩니다.

같은 시기를 지나는 다른 집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보가 고르게 퍼지는 것이 저희에게도 좋은 일이라고 믿습니다.

입시CUBE

이 책의 내용은 2026년 8월 기준 공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요강과 제도는 해마다 바뀌고 학교·대학마다 다르니, 지원 전에는 반드시 해당 학교·대학의 최신 요강을 직접 확인하십시오. 이 책은 합격 여부나 가능성을 예측하지 않습니다.